

애착과 대학생의 정체감 발달(II): 대처방식의 중재역할을 중심으로

장 휘 숙*

충남대학교 심리학과

애착과 정체감의 관계에서 대처방식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규명하기 위하여 먼저 애착과 대처방식의 관계를 검토하고 다시 대처방식과 정체감의 관계를 검토한 다음 공변량구조분석을 통하여 애착과 대처방식 및 정체감의 관계모형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대학 1, 2학년인 남녀 대학생 443명의 결과가 분석되었고 애착점수와 정체감점수는 장휘숙(2000) 연구의 결과를 사용하였다. 장휘숙 연구에서 단일문항의 4범주 애착척도를 사용하여 개인의 현재의 내적 작동모델을 측정하고 IPPA로써 어머니, 아버지, 동년배에 대한 애착이 측정되었다. 또한 정체감의 측정은 3개의 정체감 척도 즉 Erikson 심리사회적 단계검사, 자아정체감 검사 및 확장된 객관적 자아정체감 상태척도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 개인의 대처방식은 Folkman과 Lazarus(1985)의 대처방식 체크리스트의 국내 수정판이 사용되었다. 연구결과 애착은 대처방식과 관련되어 있고 대처방식은 또한 정체감과 관련되어 있어 애착 → 대처방식 → 정체감의 관계가 확인될 수 있었다. 이 연구를 통하여 대처방식은 애착과 정체감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청년후기 대학생들의 정체감 발달이 애착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하여 제시된 바 있으나(장휘숙, 2000; Lapsley, Rice & FitzGerald, 1990; Kroger & Haslett, 1988; Kroger,

1985), 대부분의 연구들이 애착과 정체감 사이의 단지 부분적인 관련성만 확인하고 있을 뿐, 애착이 정체감 확립의 선행요인이라는 것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장휘숙(2000)의 연구에서도 정체감 척도에 포함된 대부분의 하위요인들에서 안정형

* hsjang@hanbat.chungnam.ac.kr

애착양식을 제외한, 몰입형 애착양식, 두려워하는/ 회피형 애착양식 및 거부적/회피형 애착양식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정체감 하위요인들에 대한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동년배 애착이 갖는 낮은 설명량은 애착과 정체감 사이를 중재하는 변인의 존재를 가정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애착과 정체감 사이의 중재변인으로서 가장 가능성이 있는 변인은 장휘숙의 지적대로 개인의 대처양식이다. 대처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들을 약화시키고 스트레스 경험에 수반된 정서적 각성을 수정하기 위하여 개인이 사용하는 인지와 행동으로 정의된다(Billings, Cronkite & Moos, 1983). 따라서 대처는 문제해결을 이루고 외적 위협을 감소시키기 위해 자원을 배치하는 기능을 할 뿐 아니라 외적위협에 의해 야기된 긴장과 각성을 완화시키는 기능도 한다. 일찍이 Bowlby(1973)는 영아의 양육자에 대한 애착경험은 내면화되고 이 내적으로 표상된 애착의 작동모델(working models of attachment)은 개인의 인지, 정서 그리고 행동을 조직하고 피로움에 대한 반응을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시 말하면 애착이란 스트레스의 시기에 보호받고 안정감을 얻기 위하여 특별한 타인에게 근접을 추구하는 경향성이므로 스트레스에 직면하게 되면 영아기에서처럼 성인기에서도 각 개인은 그가 지니고 있는 특징적인 애착양식에 따라 스트레스에 반응할 것이라는 것이다.

애착과 대처방식의 관련 가능성은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과 정서조절간의 관계를 연구한 Kobak과 Sceery(1988)의 연구에 기초한다. 그들에 의하면, 면접방식을 사용하여 애착양식을 측정했을 때, 안정형 애착양식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피로움을 인정하고 그것을 감소시키기 위한 건설적 행동을 수행함으로써 심리적 피로움을 처리하는 경향이 있으나 거부형 애착양식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내적 피로움을 부정하거나 무시하였다. 또한 몰입형 애착양식의 소유자들은 높은 수준의 불안을

지니고 있고 더 많은 개인적 슬픔을 경험하며 낮은 자아탄력성을 지니고 있어 어려움에 대처할 준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즉 영아기에서처럼, 성인기에서의 안정된 애착은 개인을 스트레스에 견뎌낼 수 있도록 하는 반면, 불안정한 애착은 개인이 스트레스에 보잘것없는 대처를 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하면 안정된 애착은 개인의 대처기술을 증진시키는 반면, 안정되지 못한 애착은 개인이 역경과 어려움을 헤쳐가는 데 불충분하게 준비하도록 함으로써 스트레스에 부적응적으로 반응하게 하는 위협요인이라는 것이다.

애착과 대처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하여 결프전쟁이라는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을 직접 경험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을 비교한 Mikulincer, Florian 및 Weller(1993)는 안정된 애착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외상적 사건의 대처시에 지원추구 대처전략을 비교적 더 많이 사용하는 반면, 불안/양가적 애착양식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정서집중적 대처전략을 그리고 회피적 애착양식의 소유자들은 거리두기 대처전략을 유의하게 더 많이 사용한다고 밝혔다. 연구자들은 그들의 연구에서 나타난 세가지 애착양식에 따른 지원추구 대처전략과 정서집중적 대처전략 및 거리두기 대처전략에서의 차이를 바탕으로 안정된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인생초기에 양육자와의 애착관계에서 획득한 안전기지(secure base)를 미래의 스트레스적 상황에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연구에서 Hazan과 Shaver(1987)의 3범주 애착척도와 그것을 바탕으로 제작한 질문지 애착 척도가 사용되었고 Folkman과 Lazarus(1980)의 간편형 대처방식 체크리스트가 대처방식 척도로 활용되었다.

Greenberger와 McLaughlin(1998)도 애착과 개인의 대처양식이 관련되어 있다는 동일한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그들은 Hazan과 Shaver(1986)가 제작한 3범주의 애착역사 질문지를 사용하여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역사를 측정하고 그것을 부모에 대한 애착으로 활용하였으며 Bartholomew와 Horowitz(1991)의 4범주의 애착척도를 사용하여 부모이외의 타인에 대한 현재의 애착 작동모델을 측정하였다. 이와함께 Carver, Scheier, 그리고 Weintraub (1989)가 제작한 대처척도로써 개인의 대처방식을 측정한 결과 안정형 애착양식은 능동적 문제해결과 지원추구로 특징되는 문제집중적 대처양식과 정적으로 상반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나머지 다른 유형의 애착양식과 대처방식의 관련성을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한편 Bartholomew와 Horowitz(1991)의 4범주 애착척도를 사용하여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을 분류하고 Folkman과 Lazarus(1988)의 개정된 대처방식 체크리스트로써 개인의 대처양식을 측정한 Kemp와 Neimeyer(1999)는 안정형 애착은 사회적 지원추구와 유의하게 연합되어 있지 않았고 몰입형, 두려워하는/회피형 및 거부적/회피형 애착도 대처양식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연구자들은 그들의 연구에서 연구대상자가 보고한 스트레스가 Mikulincer 등의 걸프전쟁에 기인된 스트레스보다 훨씬 약한 강도의 스트레스였기 때문에 차이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주장하고 스트레스 강도가 높아질수록 애착과 대처방식의 관련성은 커질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Kemp와 Neimeyer의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애착과 대처방식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들을 종합해볼 때, 안정된 애착은 스트레스나 정서적 피로움의 경험을 완충하는 역할을 하므로 대인간 유대는 물론 개인의 대처기술을 증진시키고 불안을 감소시키며 환경적 스트레스를 처리하는 긍정적이고 건설적 전략의 발달을 이루게 하여 개선된 정서적 적응을 가져오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처방식은 개인의 정체감 상태와도 관련되어 있다. 정체감 상태와 대처방식간의 관계를 연구한 Berzonsky(1992)는 Marica의 정체감 상태를 기초로 자신이 개발한 정체감 상태 자기보고척도와 성취불안검사를 사용하여 대학생들의 정체감

상태를 측정하고 Folkman과 Lazarus(1985)의 대처방식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정체감 상태와 대처방식의 상호관계를 연구하였다. 그들은 자기관련적 정보를 능동적으로 구하고 평가하고 탐색하는 정체감 성취의 개인들은 문제집중적 대처양식을 사용하는 반면, 유의미한 타인들의 기대와 표준을 강조하는 정체감 유실 대학생과 혼란된 정체감 양식을 갖는 대학생들은 소망적 사고나, 거리두기 혹은 긴장감소와 같은 회피지향적 대처양식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정체감 상태에 따른 대처방식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Marcia(1976)의 정체감 연구에 기초한다. Marcia에 의하면, 정체감 성취나 유예로 분류된 개인들은 정체감 성취를 위하여 자기관련적 정보를 능동적으로 탐색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자기구조를 수정하여 일관성있게 통합된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정보지향적 방식으로 과제에 접근하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직면하면 문제관련적 정보를 찾고 대안을 모색하며 평가를 거친 다음 그것을 활용하는 문제집중적 대처양식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한 유실로 분류된 개인들은 유의미한 타인이나 참조집단의 명령과 기대에 일치하려고 하고 기존의 자기구조를 보존하려고 하며 내면화된 규범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나 경험에 방어적인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스트레스에 직면하면 유실자들은 충고나 지도를 얻기 위하여 타인이나 권위에 의존하고 잠재적으로 자기구조에 위협을 가하는 사건이나 상황으로부터 회피하거나 자신을 멀리함으로써 기존의 자기견해를 보존할 가능성이 크다. 대조적으로 정체감 혼란의 개인들은 기본적인 정체감 문제나 개인적인 문제를 처리하는 것을 회피하며 가능한한 행동을 지연시키려고 함으로 행동반응은 쾌락적 단서와 상황적 결과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그 결과 그들은 즉각적인 정서적 피로움을 감소시키고 부정하거나 회피함으로써 자기구조를 수정할 필요성을 최소화하는 정서집중적 대처양식을 사용할 것이라는 것이다(Folkman & Lazarus, 1980).

이상의 개관을 바탕으로 할 때, 애착은 대처방식과 관련되고 대처방식은 또한 정체감과 관련되므로 대처방식이 애착과 정체감 사이를 중재할 가능성을 가정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장휘숙(2000)의 연구에서 나타난 애착과 정체감의 관계를 기초로 두 변인에 미치는 대처방식의 역할을 규명하기 위하여 먼저 애착과 대처방식의 관계를 검토하고 다시 대처방식과 정체감의 관계를 검토한 다음 공변량구조분석을 통하여 애착, 대처방식 그리고 정체감의 관계모형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장휘숙의 연구에서 사용된 4범주의 애착척도 자료와 어머니, 아버지, 동년배에 대한 애착을 측정한, IPPA자료가 애착자료로 사용되었고 Erikson 심리사회적 단계검사, 자아정체감 척도 및 확장된 객관적 자아정체감 상태척도에 의해 측정된 정체감 자료가 활용되었다. 새롭게 측정된 대처방식은 Folkman과 Lazarus(1985)가 제작한 대처방식 체크리스트의 수정본(김정희와 이장호, 1985)을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이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규명하려고 하는 연구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 1) 4범주의 애착양식과 개인의 대처방식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 2) 어머니, 아버지, 동년배에 대한 애착은 대처방식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 3) 대처방식과 정체감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 4) 애착과 대처방식 그리고 정체감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장휘숙(2000)의 연구에 포함된 연구대상자들이 사용되었다. 그들은 2000학번과 1999학번인 지방

국립대학 1, 2학년 학생들로서 심리학개론을 수강하는 학생들이었다. 최종분석대상자들은 전체 443명으로 그 중 여학생은 279명, 남학생은 164명이며 그들의 평균연령은 각각, 18.71세(SD=0.90)와 18.91세(SD=1.23)였다. 4범주의 애착질문지와 IPPA 및 세 개의 정체감 검사는 장휘숙의 연구에서 이미 실시·수집되었으므로 대처척도만이 다시 실시되었다. 검사는 심리학개론 수업시간을 이용하여 담당교수에 의해 실시되었고 최초의 검사(애착과 정체감 검사)가 실시된 일주일 후인 3월27일부터 7일간 이루어졌다. 검사실시를 위해 약 30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2. 척도

1) 애착척도

① 4범주 애착척도

Bartholomew와 Horowitz(1991)가 Hazan과 Shaver(1987)의 3범주 애착척도를 기초로 제작한 단일 문항의 4범주 애착척도가 사용되었다. 이 척도는 이성이나 친구 혹은 일반적인 타인에 대한 현재의 애착양식을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두 개의 자기모델과 두 개의 타인모델을 기초로 4가지 유형(안정형, 물입형, 두려워하는/회피형, 거부적/회피형)의 애착양식을 구분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피검사자는 네가지 애착양식 각각을 설명하는 문장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를 7점 척도상에 표시한 다음, 상기의 네가지 애착양식 중 자신과 가장 잘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양식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7점 척도상에 응답한 결과와 네가지 양식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한 결과가 일치하지 않거나 하나 이상의 애착양식에 대해 동일한 점수를 나타낸 연구대상자들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② 부모 및 동년배 애착척도(IPPA)

Paterson, Field 그리고 Pryor(1994)가 어머니와 아버지 및 동년배에 대한 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개

작한 IPPA(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를 사용하였다. Armsden과 Greenberg(1987)에 의해 개발된 원래의 IPPA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분리하지 않고 28개의 부모문항과 25개의 동년배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Paterson 등은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동년배를 분리하여 각각 25문항씩 동일한 내용을 질문하도록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5점 척도상에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어머니와 아버지 및 동년배에 대한 애착의 질은 신뢰와 의사소통 점수의 합에서 소외점수를 뺀 점수로 계산하였다. Paterson 등과 Paterson, Pryor & Field(1995)의 연구에 나타난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동년배 애착의 내적 일관성계수(Cronbach alpha)는 각각 .94, .94, .48이었고 장휘숙(2000) 연구에서는 각각 .89, .89 그리고 .90의 내적 일관성계수를 나타내었다.

2) 정체감 척도

① EPSI (Erikson Psychosocial Stage Inventory)

Rosenthal, Gureney 및 Moore(1981)가 제작한 Erikson 심리사회적 단계검사(EPSI)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Rosenthal 등은 Eri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단계의 8개 단계 중 초기 여섯 단계의 발달양상을 측정하기 위하여 각 단계마다 위기의 성공적 해결 문항 6개와 미해결 문항 6개씩을 배정하여 전체 72문항으로 구성된 자아정체감 척도를 제작하였다. 이 척도는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내에서는 한상철(1986)이 이미 번안하여 사용한 바 있다.

② 자아정체감 척도

Dignan(1965)의 자아정체감 척도를 기초로 제작된 서봉연(1975)의 자아정체감 척도가 사용되었다. 서봉연은 자기의식, 독특성, 자기수용, 대인역할기대, 안정성, 목표지향성 및 대인관계의 7개 영역으로 구성되는 150문항의 Dignan 자아정체감 질문지에서 62개 문항을 선택하고 자기주장성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첨가하여 8개 영역(안정성, 목표지향

성, 독특성, 대인역할기대, 자기수용, 자기주장성, 자기존재의식, 대인관계), 4점 척도로 구성된 64개 문항의 질문지 자아정체감 척도를 제작하였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많은 연구들(장휘숙, 1995; 박준수, 1987; 이정란, 1987; 조성덕, 1987)이 이 척도를 사용한 바 있다.

③ 확장된 객관적 자아정체감 상태척도(EOEIS-2)

Bennion과 Adams(1986)의 확장된 객관적 자아정체감 상태척도(Extended Objective Measure of Ego Identity Status-2)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Marcia의 반구조화된 면접법을 질문지법으로 변형하여 자아정체감 척도로 구성한, Adams와 Shea(1979)의 객관적 자아정체감 상태척도(Objective Measure of Ego Identity Status: OMEIS)의 확장판이다. Bennion과 Adams는 기존의 직업, 종교, 정치영역에 생활철학, 교우관계, 이성관계, 성역할 및 여가활동을 첨가하여 확장된 객관적 자아정체감 상태척도를 제작하였다. 각 요인별로 8개 문항을 포함하며 전체 6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척도는 반구조화 면접법이 결여하는 채점의 객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제작된 질문지 척도로서 손해곤(1992)을 포함하여 이미 여러 국내 연구자들이 번안하여 사용한 바 있다.

3) 대처방식 체크리스트

Folkman과 Lazarus(1985)가 제작한 68문항의 개정된 대처방식척도를 기초로 김정희와 이장호(1985)가 수정한 62문항의 대처방식 체크리스트(The Ways of Coping Checklist)가 사용되었다. 최근에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건 하나를 기록하게 하고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가를 질문하는 이 체크리스트는 4점 Likert형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제집중적 대처, 정서완화적 대처, 소망적 사고 및 사회적 지지추구의 네가지 하위요인들을 포함한다. 김정희와 이장호는 스트레스 상황을 변화시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려는 전략인 문제집중적 대처와 타인의 도움을 구

하는 사회적 지지추구 하위요인을 합산하여 적극적인 대처양식으로 그리고 상황 자체를 변화시키기 보다는 문제상황에 대해 생각하고 평가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려고 시도하는 정서완화적 대처와 소망적 사고를 합산하여 소극적 대처양식으로 구분하였다. 김정희(1987) 연구에서의 내적 일관성계수는 .87에서 .95까지 분포하였고 이 연구에서는 문제집중적 대처 .87, 정서완화적 대처 .80, 소망적 사고 .77 그리고 사회적 지지추구 .83이었다.

결과 및 해석

1. 4범주의 애착양식과 대처방식의 관계

애착과 대처방식의 관계를 분석하기 전에 대처방식에서의 성차를 확인하였다. <표 1>은 4가지 대처방식 하위요인들의 남녀 차이 및 문제집중적 대처와 사회적 지지추구를 합산한 적극적 대처요인과 정서완화적 대처와 소망적 사고를 합산한 소극적 대처요인에서의 남녀 차이를 비교한 결과를 제시한다. 네 가지 하위요인들과 두 가지의 합산한 요인들 어느 요인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나

타내지 않음으로써 남녀 대학생들은 스트레스의 대처시에 유사한 양식을 사용한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먼저 애착의 4범주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대처방식 체크리스트의 하위요인들과 2개의 합산한 점수를 일원변량분석하였다. 장휘숙(2000)의 연구에서 4개의 애착양식에 따라 남녀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것이 이미 확인되었으므로 남녀 점수를 합산하여 분석하였다.

<표 2>에 의하면, 문제집중적 대처양식과 정서완화적 대처양식에서는 애착양식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소망적 사고요인과 사회적 지지추구요인 및 문제집중적 대처요인과 사회적 지지추구요인을 합산한 적극적 대처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분석으로 Bonferroni 검증을 실시한 결과, 소망적 사고요인에서는 2집단과 4집단 및 3집단과 4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자기모델은 부정적이고 타인모델은 긍정적인 몰입형 애착양식을 지니고 있는 개인들과 자기모델과 타인모델이 모두 부정적인 두려워하는/회피형 애착양식을 갖는 개인들이 자기모델은 긍정적이고 타인모델은 부정적인 거부적/회피형 애착양식의 소유자들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소망적 사고를 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또한 사회적 지지추구요인과 적극적 대처요인에서는 1범주와 4범주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자기모델과 타인모델이 모두 긍정적인 1 범주의 안정형 애착양식을 지니고 있는 개인들은 사회적 지지추구요인 및 문제집중적 대처요인과 사회적 지지추구요인을 합산한 적극적 대처요인에서 자기모델은 긍정적이고 타인모델은 부정적인 4 범주의 거부적/회피형 애착양식을 갖는 사람들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타인을 믿을 수 없고 접근 불가능한 대상으로 지각하는 거부적/회피형 애착양식의 소유자들이 타인의 도움을 구하는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양식에서 더 낮은 점수를 나타내는 것은 당연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 연구를 통하여 몰입형 애착양식과 두려워

표 1. 남녀에 따른 대처방식 체크리스트의 하위요인들

분류	남학생	여학생	F값
	M(SD)	M(SD)	
문제집중적 대처	1.59(0.52)	1.58(0.48)	0.16
정서완화적 대처	1.20(0.46)	1.23(0.42)	0.77
소망적 사고	1.81(0.57)	1.87(0.49)	1.85
사회적 지지추구	1.49(0.69)	1.54(0.70)	1.90
적극적 대처	1.50(0.53)	1.56(0.50)	1.06
소극적 대처	1.47(0.46)	1.55(0.38)	1.87

* p<.05, ** p<.01, *** p<.001 이하 동일함.

표 2. 애착의 4범주에 따른 대처방식 체크리스트의 하위요인들

분류	1범주 (안정형)	2범주 (몰입형)	3범주 (두려워하는/회 피형)	4범주 (거부적/ 회피형)	F값	사후검증 (Bonferroni)
	M(SD)	M(SD)	M(SD)	M(SD)		
문제집중적 대처	1.63(0.47)	1.56(0.51)	1.54(0.49)	1.47(0.54)	1.12	
정서완화적 대처	1.18(0.42)	1.26(0.44)	1.22(0.46)	1.21(0.44)	0.90	
소망적 사고	1.81(0.54)	1.88(0.49)	1.88(0.46)	1.54(0.61)	3.71 *	2-4, 3-4
사회적 지지추구	1.57(0.70)	1.49(0.69)	1.43(0.74)	1.11(0.60)	3.68 *	1-4
적극적 대처	1.60(0.51)	1.53(0.52)	1.49(0.52)	1.29(0.47)	3.08 *	1-4
소극적 대처	1.49(0.41)	1.56(0.40)	1.55(0.40)	1.37(0.46)	2.07	

하는/회피형 애착양식을 지니고 있는 개인들은 거부적/회피형 애착양식의 소유자들보다 소극적 대처양식인 소망적 사고를 유의하게 더 많이 사용하고 안정형 애착양식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거부적/회피형 애착양식을 지니고 있는 개인들보다 사회적 지지추구 및 문제집중적 대처와 사회적 지지추구를 합산한 적극적 대처양식을 유의하게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에 대한 애착 그리고 동년배에 대한 애착은 문제집중적 대처와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었다. 다시 말하면 3인의 애착인물에 대한 애착이 강할수록 문제집중적 대처양식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대조적으로 정서완화적 대처양식은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어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약할수록 정서완화적 대처양식을 사용한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또한 어머

2. 어머니, 아버지, 동년배에 대한 애착과 대처방식의 관계

IPPA로 측정된 어머니, 아버지, 동년배에 대한 애착점수에서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확인한 결과, 어머니($t=0.04, p>.05$), 아버지($t=1.88, p>.05$), 및 동년배($t=0.168, p>.05$)에 대한 애착점수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남녀 점수를 합산하여 사용하였다. <표 3>은 어머니, 아버지, 동년배에 대한 애착과 대처방식 체크리스트의 하위요인들 사이의 상관을 계산한 결과이다.

<표 3>에 의하면, 어머니에 대한 애착, 아버지

표 3. 어머니, 아버지, 동년배에 대한 애착점수와 대처양식 하위요인들과의 상관관계표

분 류	어머니에 대한 애착	아버지에 대한 애착	동년배에 대한 애착
문제집중적 대처	0.208***	0.125**	0.257**
정서완화적 대처	-0.217***	-0.096	-0.061
소망적 사고	-0.003	-0.062	0.151
사회적 지지추구	0.206***	0.115	0.345***
적극적 대처	0.244***	0.142**	0.369***
소극적 대처	-0.125*	-0.103*	0.054

니와 동년배에 대한 애착과 사회적 지지추구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어 두 사람에 대한 애착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양식을 사용한다는 해석이 가능하였다. 이와함께 문제집중적 대처와 사회적 지지추구를 합산한 적극적 대처양식은 어머니, 아버지, 동년배에 대한 애착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반면, 정서완화적 대처와 소망적 사고를 합산한 소극적 대처양식은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것은 어머니, 아버지, 동년배에 대한 애착이 강할수록 적극적 대처양식을 사용하고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이 약할수록 소극적 대처양식을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머니, 아버지, 동년배에 대한 애착 중 어느 것이 대처방식 체크리스트의 각 하위요인에 더 큰 영향을 주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표 3>의 결과로써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표 4>에서 대처방식 체크리스트의 문제집중적 대처요인과 사회적 지지추구요인에서는 동년배에 대한 애착과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각각

7.9%와 13.4%의 설명량을 나타내고 정서완화적 대처요인에서는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4.3% 그리고 소망적 사고에서는 동년배에 대한 애착과 아버지에 대한 애착이 3.4%의 설명량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적극적 대처양식에서는 동년배와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14.6%의 설명량을 그리고 소극적 대처양식에서는 어머니와 동년배에 대한 애착이 2.5%의 설명량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울기의 방향을 고려할 때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낮을 때 정서완화적 대처가 나타나고 아버지에 대한 애착이 낮을 때 소망적 사고가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낮을 때 사회적 지지추구와 소극적 대처가 나타나나 그 설명량이 크지는 않았다. 그러나 동년배의 애착은 문제집중적 대처, 소망적 사고, 사회적 지지추구, 적극적 대처 및 소극적 대처에 모두 영향을 미치고 있어 동년배는 바람직한 대처양식은 물론 바람직하지 못한 대처양식에도 영향을 주는 인물이었다. 이 연구를 통하여 아버지보다는 동년배와 어머니가 대학생들의 대처방식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 확인될 수 있었다.

표 4. 대처방식 체크리스트의 하위요인에 대한 회귀 분석결과

분류	변인	β	ΔR^2	R^2	F 값
문제집중적 대처	동년배	.20	0.065	0.065	27.17***
	어머니	.11	0.014	0.079	5.90*
정서완화적 대처	어머니	-.22	0.043	0.043	17.69***
소망적 사고	동년배	.18	0.022	0.022	8.85**
	아버지	-.09	0.011	0.034	4.60*
사회적 지지추구	동년배	.32	0.127	0.127	56.53***
	어머니	-.08	0.006	0.134	2.77*
적극적 대처	동년배	.32	0.134	0.134	59.97***
	어머니	.11	0.012	0.146	5.55*
소극적 대처	어머니	-.13	0.013	0.013	5.26*
	동년배	.12	0.012	0.025	4.88*

3. 대처방식과 정체감의 관계

대처방식과 정체감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먼저 두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계산하였다(<표 5> 참조). <표 5>에 의하면, 개인의 자아정체감을 측정하는 Erikson 심리사회적 단계검사의 6개 하위요인들과 전체 점수는 문제집중적 대처양식 요인과 사회적 지지추구 요인 및 이 두 개의 요인을 합산한 적극적 대처양식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심리사회적 단계검사의 하위요인 점수들이 높을수록(자아정체감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집중적 대처와 사회적 지지추구를 포함하여 적극적 대처양식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제시한다.

대조적으로 심리사회적 단계검사의 6개 하위요인들과 전체점수는 정서완화적 대처요인과 유의

표 5. 대처방식과 각 정체감 하위요인들간의 상관관계표

분 류		문제집중적 대처	정서완화적 대처	소망적 사고	사회적 지지추구	적극적 대처	소극적 대처
Erikson 심리 사회적 단계검사	신뢰성	0.21419***	-0.24103***	-0.05656	0.12263*	0.18568***	-0.17070***
	자율성	0.19842***	-0.28625***	-0.09961*	0.12454**	0.18164***	-0.21697***
	자주성	0.31564***	-0.16779***	0.00355	0.20022***	0.27990***	-0.08738
	근면성	0.28113***	-0.19684***	0.00989	0.16409***	0.24858***	-0.09723*
	정체감	0.28492***	-0.18972***	0.00250	0.24045***	0.30835***	-0.10590*
	친밀성	0.26084***	-0.13287***	0.00370	0.15250**	0.22954***	-0.06975
	전체	0.30300***	-0.23861***	-0.02871	0.19684***	0.27997***	-0.14813**
자아 정체감 척도	안정성	-0.16277**	-0.13460**	-0.19186***	-0.07303	-0.12666**	-0.20221***
	목표지향성	0.16094***	-0.20642***	-0.01883	-0.00401	0.06940	-0.12830**
	독특성	0.01743	0.10621*	-0.00646	-0.16125***	-0.10461*	0.05287
	대인역할기대	0.24041***	-0.09886*	0.12169*	0.14463**	0.22212***	0.01479
	자기수용	0.12692**	-0.18450***	-0.15503**	0.07855	0.12013*	-0.19271***
	자기주장성	0.15021**	-0.08820	-0.12549**	-0.03661	0.05035	-0.13578**
	자기존재의식	-0.05041	-0.24416***	-0.19157***	0.02869	-0.00603	-0.25875***
	대인관계	0.25192***	-0.06964	0.08997	0.35985***	0.37274**	0.01463
전체	0.19618***	-0.23979***	-0.10531*	0.09609	0.16337**	-0.20245***	
확장된 객관적자아 정체감상태 척도	정체감 성취	0.34689***	0.04581	0.14767**	0.14061**	0.26758***	0.11393*
	정체감 유예	0.32028***	0.19053***	0.26733***	0.22766***	0.31376***	0.27040***
	정체감 유실	-0.09819*	0.03204	-0.07780	0.00552	-0.03856	-0.02030
	정체감 혼란	-0.29471***	0.11736 *	-0.11487*	-0.17200***	-0.26425***	0.00269

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고 자율성과 소망적 사고 및 신뢰성, 자율성, 근면성, 정체감 그리고 전체점수와 소극적 대처양식간에도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다시 말하면 심리사회적 단계검사의 하위요인들 점수가 낮을수록(개인의 자아정체감 점수가 낮을수록) 정서완화적 대처 및 정서완화적 대처와 소망적 사고를 합산한 소극적 대처양식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자아정체감 척도에서는 Erikson 심리사회적 단계검사에서도 같은 일관성있는 결과를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8개 하위요인들 중 목표지향성, 대인

역할기대, 자기수용, 자기주장성, 대인관계 그리고 전체점수와 문제집중적 대처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대인역할기대와 대인관계요인은 사회적 지지추구는 물론 문제집중적 대처와 사회적 지지추구를 합산한 적극적 대처양식과도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또한 독특성 요인과 자기주장성 요인을 제외한 자아정체감 척도의 모든 하위요인들은 정서완화적 대처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고 대인역할기대와 대인관계요인을 제외한 나머지 하위요인들은 소망적 사고와 함께 소극적 대처양식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

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정체감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집중적 대처양식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정체감 요인 중 대인역할기대와 대인관계요인 점수가 높을 때는 적극적 대처양식을 사용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자아정체감 점수가 낮을수록 정서완화적 대처와 소망적 사고 및 그 두 요인을 합산한 소극적 대처양식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대처방식 하위척도 중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양식은 문제집중적 대처양식과 함께 적극적 대처양식을 구성하는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아정체감 척도의 대부분의 하위요인들과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냄으로써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안정성 요인은 대처방식 체크리스트의 모든 요인들과 부적 상관을 나타냄으로써 정체감 하위요인으로써 적절한 하위요인이 아니라는 해석을 가능하게 하였고 독특성 하위요인은 정서완화적 대처양식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고 사회적 지지추구 및 적극적 대처양식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어 독특성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완화적 대처를 포함하여 소극적 대처양식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내었다.

확장된 객관적 자아정체감 상대척도로써 개인의 자아정체감 상태를 측정된 결과 정체감 성취는 정서완화적 대처를 제외한 모든 대처방식 요인들과 그리고 유예는 모든 대처방식 하위요인들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정체감 혼란은 문제집중적 대처, 소망적 사고, 사회적 지지추구 및 적극적 대처요인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고 정서완화적 대처양식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어 정체감 혼란상태의 대학생들은 문제집중적 대처양식을 포함하여 소망적 사고,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전략을 적게 사용하고 정서완화적 대처양식을 많이 사용한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체감 유실의 대학생들은 문제집중적 대처양식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냄으로써 유실 청년들일수록 문제집중적 대처양식을 적게

사용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정체감 성취의 개인들이 문제집중적 대처와 사회적 지지추구를 포함하여 적극적 대처양식을 사용하면서 소망적 사고와 소극적 대처양식을 함께 사용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결과였다.

대처방식 체크리스트의 하위요인들 중 어느 요인이 정체감 척도의 각 하위요인에 더 큰 영향을 주는가를 규명하기 위하여 <표 5>의 결과를 바탕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6>은 Erikson 심리사회적 단계검사의 6개 하위요인들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표 6>에서 Erikson 심리사회적 단계검사의 6개 하위요인들 중 신뢰성, 자율성, 자주성, 친밀성 및 전체점수에서 문제집중적 대처와 정서완화적 대처 및 소망적 사고가 각각 13.8%, 17.2%, 17.1%, 11% 그리고 19.5%의 유의한 설명량을 갖는다는

표 6. Erikson 심리사회적 단계검사의 6개 하위요인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분류	변인	β	ΔR^2	R^2	F 값
신뢰성	문제집중적 대처	.32	0.068	0.068	30.79***
	정서완화적 대처	-.23	0.059	0.128	25.08***
	소망적 사고	-.15	0.010	0.138	4.84*
자율성	정서완화적 대처	-.27	0.086	0.086	37.31***
	문제집중적 대처	.34	0.071	0.157	33.16***
	소망적 사고	-.18	0.014	0.172	6.87**
자주성	문제집중적 대처	.42	0.100	0.100	43.87***
	정서완화적 대처	-.17	0.058	0.159	27.50***
	소망적 사고	-.17	0.012	0.171	6.04 *
근면성	문제집중적 대처	.35	0.079	0.079	33.93***
	정서완화적 대처	-.23	0.071	0.151	33.19***
정체감	문제집중적 대처	.33	0.076	0.076	32.56***
	정서완화적 대처	-.19	0.063	0.139	28.86***
	소망적 사고	-.14	0.011	0.151	5.36*
	사회적 지지추구	.13	0.009	0.160	4.52*
친밀성	문제집중적 대처	.34	0.065	0.065	27.47***
	정서완화적 대처	-.13	0.036	0.102	16.14***
	소망적 사고	-.14	0.008	0.110	3.87*
전체	정서완화적 대처	-.24	0.095	0.095	34.95***
	문제집중적 대처	.41	0.088	0.184	7.13***
	소망적 사고	-.16	0.011	0.195	5.10*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자율성에서는 정서완화적 대처가 문제집중적 대처보다 더 큰 설명량을 갖는 차이가 있었다. 한편 근면성은 문제집중적 대처와 정서완화적 대처가 15.1%의 유의한 설명량을 그리고 정체감은 대처방식 체크리스트를 구성하는 네가지 하위요인 모두가 16%의 유의한 설명량을 갖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울기의 방향을 고려할 때, 문제집중적 대처양식과 사회적 지지추구는 일관성있게 정체감 하위요인들의 점수가 높을 때 사용되는 대처양식인 반면, 정서완화적 대처와 소망적 사고는 모두 정체감 하위요인들의 점수가 낮을 때 사용될 수 있는 대처양식이라는 해석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개인의 대처방식과 정체감이 서로 관련된 변인임을 더욱 분명하게 해주었다.

또한 대처방식 체크리스트의 하위요인들이 자아정체감 척도의 8개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회귀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에 제시된 대로, 자아정체감 척도의 8개 하위요인에 대한 대처방식 체크리스트의 하위요인들이 갖는 설명량은 최저 3.5%에서 최고 14.4%까지 범위하였고 전체점수에서는 15.2%의 유의한 설명량을 나타내었다. 기울기의 방향을 고려할 때, 정체감 하위요인들의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집중적 대처양식을 사용하고 정체감 하위요인들의 점수가 낮을수록 정서완화적 대처, 사회적 지지추구 및 소망적 사고를 사용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사회적 지지추구요인은 적극적 대처양식을 구성하는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정체감 하위요인들과 역상관의 관계를 나타낸다는 사실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을 뿐아니라 Erikson 심리사회적 단계검사 결과와도 일치하지 않는 결과였다. <표 7>의 결과로서 자아정체감척도의 8개 하위요인들은 사회적 지지추구요인을 제외하고 대처방식 체크리스트의 하위요인들과 유의미한 관계를 갖는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표 8>은 정체감 상태에 대한 대처방식 체크

표 7. 자아정체감 척도의 8개 하위요인에 대한 회귀 분석결과

분류	변인	β	ΔR^2	R^2	F 값
안정성	소망적 사고	-.17	0.041	0.041	15.46***
목표 지향성	정서완화적 대처	-.21	0.050	0.050	19.69***
	문제집중적 대처	.30	0.036	0.086	13.62***
	사회적 지지추구	-.11	0.010	0.097	4.17*
독특성	사회적 지지추구	-.20	0.024	0.024	9.03**
	문제집중적 대처	.12	0.010	0.035	3.94*
대인 역할기대	문제집중적 대처	.24	0.068	0.068	26.36***
	정서완화적 대처	-.10	0.008	0.076	3.13*
자기수용	소망적 사고	-.32	0.046	0.046	18.81***
	정서완화적 대처	-.09	0.036	0.082	13.50***
	문제집중적 대처	.35	0.041	0.124	16.31***
자기 주장성	소망적 사고	-.34	0.083	0.083	33.40***
	문제집중적 대처	.41	0.024	0.107	8.98**
	사회적 지지추구	-.11	0.010	0.117	4.27*
자기 존재의식	정서완화적 대처	-.20	0.081	0.081	31.77***
대인관계	사회적 지지추구	.29	0.122	0.122	50.23***
	문제집중적 대처	.19	0.010	0.132	4.27*
	정서완화적 대처	-.08	0.011	0.144	4.94*
전체	문제집중적 대처	.39	0.066	0.066	27.01***
	정서완화적 대처	-.17	0.054	0.120	20.65***
	소망적 사고	-.26	0.031	0.152	13.43***

리스트의 하위요인들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확장된 객관적 자아정체감 상태척도의 전체점수에서 4가지 상태요인들에 대해 회귀분석한 결과이다.

<표 8>에 제시된 것처럼, 정체감 성취에서 문제집중적 대처가 12.8%의 유의한 설명량을 나타내고 정체감 유예에서는 문제집중적 대처, 소망적 사고 및 사회적 지지추구가 12.5%의 유의한 설명량을 그리고 정체감 혼란에서는 문제집중적 대처와 정서완화적 대처가 11.8%의 유의한 설명량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정체감 유실에서는 β 의 기울기가 제로(0)인 영가설을 기각하지 못해 회귀분석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표 8. 확장된 객관적 자아정체감 상태척도의 하위요인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분류	변인	β	ΔR^2	R^2	F 값
정체감 성취	문제집중적 대처	.42	0.128	0.128	57.11***
정체감 유예	문제집중적 대처	.20	0.102	0.102	44.17***
	소망적 사고	.09	0.015	0.118	6.82**
	사회적 지지추구	.10	0.007	0.125	3.07
정체감 유실	회귀분석의 가정에 적합하지 않음				
정체감 혼란	문제집중적 대처	-.28	0.083	0.083	35.21***
	정서완화적 대처	.20	0.034	0.118	15.09***

기울기의 방향을 고려할 때, 정체감 성취상태의 개인은 문제집중적 대처양식을 많이 사용하는 반면, 정체감 혼란상태의 개인들은 문제집중적 대처양식을 적게 사용하고 정서완화적 대처양식을 많이 사용하는 경향을 나타내어 Erikson 심리사회적 단계검사 및 자아정체감 척도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또한 정체감 유예상태 개인들은 적극적 대처양식에 해당하는 문제집중적 대처와 사회적 지지추구를 많이 사용하면서도 동시에 소극적 대처양식인 소망적 사고를 많이 사용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4. 애착과 대처양식 및 정체감의 관계

이 연구에서 나타난 애착과 대처양식 그리고 대처양식과 정체감 사이의 유의한 관계를 기초로 연구자는 애착이 대처양식에 영향을 주고 대처양식이 다시 개인의 정체감에 영향을 주는 애착 → 대처양식 → 정체감의 관계를 가정하였다. 연구자가 가정한 모형의 적합도를 규명하기 위하여 공변량 구조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9>의 결과가 도출되었다.

<표 10>에서 전반적인 지수인 GFI는 .95이상으로 모형이 적합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보다 현

표 9. 모형의 전반적 적합도 검증결과

df	χ^2	GFI	AGFI	NFI	NNFI	RMR
8	23.88(p<.001)	0.98	0.94	0.97	0.94	0.007

실적 지수를 나타내는 AGFI가 .94이고, 비표준부합치인 NNFI 및 표준부합치인 NFI가 모두 0.9이상일 뿐아니라 원자료의 행렬과 재생산 행렬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RMR의 값도 0에 가까운 0.007이어서 모형의 적합도를 유의하게 충족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또한 세부적 지수에서도 모델에 표시된 각 경로의 고정지수(T-value)들이 모두 유의미하였으며 수정지수 역시 낮은 값들을 보여주어 <그림 1>과 같은, 연구자가 가정한 모형과 일치하는 공변량구조 모형을 도출할 수 있었다. <그림 1>의 결과로써 대처방식이 애착과 정체감 사이를 증재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분명해질 수 있었다.

논 의

이 연구는 443명의 대학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장휘숙(2000) 연구의 후속으로 애착과 정체감의 관계에서 대처방식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규명하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애착과 대처방식의 관계를 검토하고 다시 대처방식과 정체감의 관계를 검토한 다음 공변량구조분석을 통하여 애착과 대처방식 및 정체감의 관계모형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애착은 대처방식과 관련되어 있고 대처방식은 또한 정체감과 관련되어 있어 애착 → 대처방식 → 정체감의 관계가 확인될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 애착점수로 장휘숙(2000)의 연구에서 사용된 단일문항의 4범주 애착양식결과와 어머니, 아버지, 동년배에 대한 애착을 측정하는 IPPA 결과가 사용되었고 또한 정체감 점수로서 Erikson 심리사회적 단계검사, 자아정체감 검사 및 확장된 객관적 자아정체감 상태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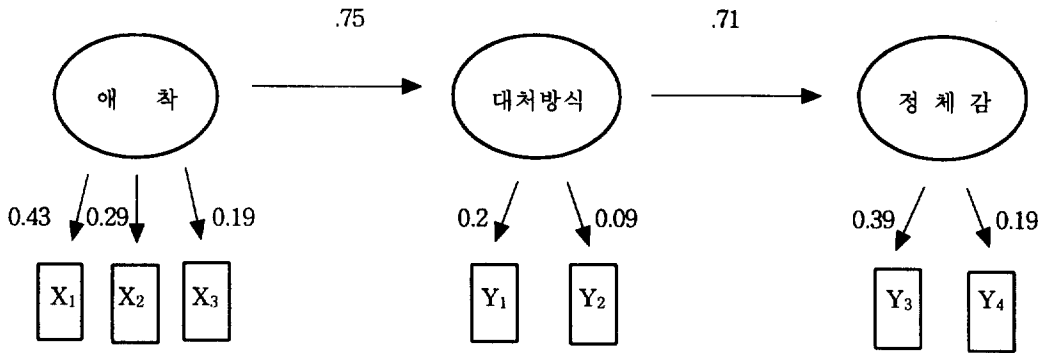


그림 1. 애착, 대처방식 및 정체감의 공변량구조모형

- X1: 어머니 애착점수, X2: 아버지 애착점수, X3: 동년배 애착점수
- Y1: 적극적 대처, Y2: 소극적 대처
- Y3: 정체감 척도(Erikson 심리사회적 단계검사)
- Y4: 정체감 척도(자아정체감 척도)

도로 측정된 결과가 사용되었다. 또한 개인의 대처양식은 Folkman과 Lazarus의 대처방식 체크리스트의 국내 수정판이 사용되었다. 애착양식은 물론 어머니, 아버지, 동년배에 대한 애착에서 남녀 차이가 없었을 뿐 아니라(장휘숙, 2000) 대처방식에서도 남녀 차이가 없어 남녀를 합산하여 분석하였다.

애착과 대처방식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애착양식에 따라 문제집중적 대처양식과 정서완화적 대처양식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소망적 사고와 사회적 지지추구 및 문제집중적 대처와 사회적 지지추구를 합산한 적극적 대처양식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자기모델이 부정적인 몰입형 애착양식과 두려워하는/회피형 애착양식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모델이 긍정적인 거부적/회피형 애착양식집단보다 유의하게 더 많이 소망적 사고를 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자기모델은 긍정적이나 타인을 믿을 수 없는, 접근불가능한 대상으로 지각하는 거부적/회피형 애착양식의 소유자들이 자기모델과 타인모델이 모두 긍정적인 안정형 애착양식의 소유자들보다 유의하게 더 적은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양식을 사용함으로써 기존의 애착이론은 물론 선행연구 결과들과도 일치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Greenberger & McLaughlin, 1998; Mikulincer 등, 1993; Kobak & Sceery, 1988).

그러나 본 연구와 유사한 연령의 연구대상자와 유사한 척도를 사용한 Kemp와 Neimeyer(1999)의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였다. 이 연구자들은 그들의 연구에 사용된 스트레스가 Mikulincer 등이 사용한 스트레스 상황인, 결프전쟁에 기인한 스트레스보다 더 약한 강도의 스트레스였기 때문에 애착과 대처양식간에 유의한 관계가 도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안정된 애착양식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가 아니라 단지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하에서만 사회적 지지추구를 나타낸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학생들이 보고한 스트레스는 학업이나 취업, 친구 관계 혹은 부모와의 관계와 같은 일상적인 스트레스였기 때문에 Kemp와 Neimeyer의 주장을 수용하기는 어렵다. 단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학생들이 보고한 스트레스가 전쟁상황과 같은 극단적인 스트레스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문제집중적 대처

양식이나 정서완화적 대처양식에서는 애착양식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가정은 해볼 수 있다.

어머니, 아버지, 동년배에 대한 애착도 대처방식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어머니, 아버지, 동년배에 대한 애착이 강할수록 문제집중적 대처양식을 사용하고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이 약할수록 정서완화적 대처양식을 사용하며 어머니와 동년배에 대한 애착이 강할수록 사회적 지지추구 전략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회귀분석결과 어머니와 동년배에 대한 애착이 아버지에 대한 애착보다 대학생들의 대처양식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었고 특히 동년배에 대한 애착은 대처방식 체크리스트의 4개의 모든 하위요인들과 적극적 및 소극적 대처양식에 영향을 주고 있어, 동년배는 바람직한 대처양식은 물론 바람직하지 못한 대처양식에도 영향을 주는 인물이었다. 청년 후기인 대학시기 동안 부모보다 동년배가 젊은이들의 정체감 형성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은 발달단계적 특성상 당연한 결과로 해석된다.

대처방식과 정체감의 관계에서 대학생들의 정체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3개의 척도들이 상이한 가정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유사한 경향을 나타냄으로써 대처방식과 정체감이 서로 관련된 변인임을 분명하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서봉연의 자아정체감 척도에서 적극적 대처양식을 구성하는 사회적 지지추구요인이 자아정체감 척도의 대부분의 하위요인들과 부적 상관을 나타내는가 하면 안정성 요인은 모든 대처방식 요인들과 또한 부적 상관을 나타냄으로써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못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Erikson 이론을 바탕으로 제작된 Erikson 심리사회적 단계검사에서는 정체감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집중적 대처, 사회적 지지추구 및 적극적 대처양식을 많이 사용하고 정체감 점수가 낮을수록 정서완화적 대처, 소망적 사고 및 소극적 대처양식을 많이 사용한다는 결과와 비교할 때, 자아정체감 척도에서 나타난 결과는 자아정체감 척도

자체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자아정체감 척도의 적극적 대처양식인 사회적 지지추구가 소극적 대처양식과 동일한 기울기 방향을 나타냄으로써 정체감 점수가 높은 사람들이 적극적 대처양식과 소극적 대처양식을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타당하지 못한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이 가능성을 뒷받침하였다. Erikson 심리사회적 단계검사는 Eri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단계에 기초하여 제작된 검사로서 8개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 중 초기 6단계의 발달양상을 측정하는 반면, 자아정체감 척도는 정체감을 자기개념의 통합성, 안정성, 명확성 및 그와 관련된 감정으로 정의하였으므로 두 개의 척도는 가정에서 이미 차이를 지니고 있다. 현재로서 어느 척도가 더 타당한가를 논하기 어려우나, 안정성 요인을 포함하여 자아정체감 척도의 일부 요인들이 수정될 필요가 있음이 제안될 수 있다.

또한 확장된 객관적 자아정체감 상태척도의 정체감 성취는 문제집중적 대처, 소망적 사고, 사회적 지지추구, 적극적 대처양식 및 소극적 대처양식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정체감 유예는 대처방식 체크리스트의 모든 하위요인들과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또한 정체감 유실은 문제집중적 대처와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으며 정체감 혼란은 문제집중적 대처, 소망적 사고, 사회적 지지추구 및 적극적 대처양식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그리고 정서완화적 대처양식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회귀분석결과 정체감 성취상태의 개인들은 스트레스 상황을 변화시킴으로써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려는 문제집중적 대처양식을 많이 사용하고 정체감 혼란상태의 개인들은 스트레스 상황 자체를 변화시키기보다는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 생각하고 평가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정서집중적 대처양식을 많이 사용하여 Marcia(1976)의 연구는 물론 Berzonsky(1992) 연구와도 일치하였다.

그러나 정체감 유실상태는 β 의 기울기가 제로(0)인 영가설을 기각하지 못해 회귀분석이 불가능

하였다. 이러한 결과와 정체감 성취와 유예상태가 적극적 대처양식은 물론 소극적 대처양식과도 유의한 상관을 갖는다는 사실은 대처방식과 정체감의 관계가 선형이 아니어서 통계적으로 정체감 상태를 구분하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연구대상자들이 대학 신입생들과 이제 막 2학년으로 진급한 학생들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그들이 아직도 정체감 획득과정에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다. 이와함께 확장된 객관적 정체감 상태척도가 개인의 정체감 상태를 유의하게 구분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대학 1, 2학년은 물론 3, 4학년들을 함께 포함하는 동시에 정체감 상태를 측정하는 다른 측정방법들이 모색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질문지검사와 함께 면접과 같은 질적 연구방법들이 함께 사용될 수 있다면, 이 연구의 정체감 상태에서 나타난 문제는 물론 자기 보고 질문지만 사용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공유된 방법변량(method variance)의 잠재적 효과가 통제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애착과 정체감의 관계에서 대처방식의 역할을 규명하기 위해 실시된 공변량구조분석결과 연구자의 가정대로 애착이 대처방식에 영향을 주고 대처방식이 다시 정체감에 영향을 주는 애착 → 대처방식 → 정체감의 관계가 확인될 수 있었다. 장휘숙(2000)의 연구에서 애착과 정체감이 서로 관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관련정도가 크지 않았던 것도 애착이 중재변인을 경유하여 정체감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는 연구자의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다. 대처방식 이외에도 많은 다른 변인들이 애착과 정체감 사이를 중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래의 연구에서는 다양한 중재변인들을 찾아내고 더 나아가 중재변인들 사이의 역동적 상호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연구가 수행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하여 대처방식은 애착과 정체감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참고문헌

- 김정희(1987). 지각된 스트레스, 인지세트 및 대처방식의 우울에 대한 작용-대학 신입생의 스트레스 경험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 학위논문.
- 김정희와 이장호(1985).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구성요인 및 우울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행동과학연구소: 행동과학 연구 8, 143-153.
- 서봉연(1975). 자아정체감 형성에 관한 심리학적 일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손해곤(1992). 대학생의 자아정체감 형성과정 및 정체감 위기.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정란(1987). 대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자아실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휘숙(1995). 세가지의 자아정체감 척도에 관한 비교연구. 황용연 교수 정년퇴임 기념논문집.
- 장휘숙(2000). 애착과 대학생의 정체감 발달(I). 한국심리학회: 발달, Vol. 13, No. 2.
- Adams, G. R., & Shea, J. A. (1979). The relationship between identity status, locus of control and ego developmen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8, 81-89.
- Bartholomew, K., & Horowitz, L. (1991).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 of a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226-244.
- Bennion, L. D., & Adams, G. R. (1986). A revision of the Extended Version of the Objective Measure of Ego-identity Status: An identity instrument for use with late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 183-198.
- Berman, W. H. (1988). The relationship of ex-spouse attachment and adjustment following divorce.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 312-328.
- Berman, W. H., & Sperling, M. (1991). Attachment

- and distress in the transition to colleg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0, 427-440.
- Berzonsky, M. D. (1992). Identity style and coping strategies. *Journal of Personality* 60: 4, 771-788.
- Billings, A. G., Cronkite, R. C., & Moos, R. H. (1983). Social-environmental factors in unipolar depression: Comparison of depressed patients and nondepressed control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2, 119-133.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Attachment*. New York: Basic Books.
- Carver, C. S., Scheier, M. F., & Weintraub, J. K. (1989). Assessing coping strategies: A theoretically-based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267-283.
- Dignan, M. H. (1965). Ego identity and maternal identific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 5, 476-483.
- Folkman, S., & Lazarus, R. S. (1980). An analysis of coping in a middle-aged community sampl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1: 219-239.
- Folkman, S., & Lazarus, R. S. (1988). *Manual for the ways of coping questionnaire: Research edition*.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Greenberger, E., & McLaughlin, C. S. (1998). Attachment, coping, and explanatory style in late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27, No. 2, 121-139.
- Hazan, C., & Shaver, P. (1986). *Parental caregiving style questionnaire*. Unpublished questionnaire.
- Hazan, C., & Shaver, P.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511-524.
- Kemp, M. A., & Neimeyer, G. J. (1999). Interpersonal attachment: Experiencing, expressing and coping with stre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 46, No. 3, 388-394.
- Kobak, R. R., & Sceery, A. (1988). Attachment in late adolescence: Working models, affect regulation and representations of self and others. *Child Development*, 59: 135-146.
- Kroger, J. (1985). Separation-individuation and ego identity status in late adolescence: A two-year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7, 59-79.
- Kroger, J., & Haslett, S. J. (1988). Separation-individuation and ego identity status in late adolescence: A two-year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7, 59-79.
- Lapsley, D. K., Rice, K. G., & FitzGerald, D. P. (1990). Adolescent attachment, identity and adjustment to college: Implications for the continuity of adaptation hypothesi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Vol. 68, 561-565.
- Marcia, J. E. (1976). *Studies in ego identity*. Unpublished monograph, Simon Fraser University, Burnaby, British Columbia.
- Mikulincer, M., Florian, V., & Weller, A. (1993). Attachment styles, coping strategies and posttraumatic psychological distress: The impact of the Gulf War in Isra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 817-826.
- Paterson, J. E., Field, J., Pryor, J. (1994). Adolescents' perceptions of their attachment relationships with their mothers, fathers and friend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3, 579-600.
- Paterson, J., Pryor, J., & Field, J. (1995). Adolescent autonomy and ego identity: A structural equations approach to the continuity of adaptation.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2, 393-410.

Attachment and the Development of ego identity in College Students: Mediating Role of Coping Ways

Hwee Sook, Jang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ole of the coping way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and ego identity through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443 college students were tested by modified Ways of Coping Checklist in this study. The results of the attachment measures and three ego identity tests collected Jang's(2000)study were used. As a result, attachment style and attachment to mother, father and peer were related to the ways of coping and the ways of coping were related to the ego identity in college students. LISREL revealed that the ways of coping is mediating between attachment and ego identity.